보도자료	보도일시	2026. 11. 25.(수) 배포 즉시
	담 당 자	박규찬 담당(02-3775-9120)
	홍보담당	변철성 수석역(02-3775-9115)
	매 수	총 2매

보험연구원,
『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』

"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필요"

○ **보험연구원(김헌수 원장)**은 **11월 25일(수)**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**'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'**에 **동참**한다고 밝혔다.

- 동 캠페인은 "더 이상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'사람 살리는 금융'이 지키겠습니다"라는 메시지 아래,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·공공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,
- **김헌수 원장**은 **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**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다.

○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급전 수요를 불법사금융에 의존하면서,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, 불법 추심 등의 피해가 서민의 생계와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

- 불법사금융 피해는 과다채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불법 추심에 따른 정신적 고통, 가계 해체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며, 특히 청년, 고령층,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

- ‘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’과 ‘불법사금융 신고·상담’ 등의 공적 지원 제도는 있지만, 이제 공·사의 연계를 통해 보험산업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역할 제고 필요

○ **보험연구원 김헌수 원장**은 “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.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, 보험산업 분야에서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포용금융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- 사진자료 -



(사진설명) 보험연구원(김헌수 원장)은 11월 25일(수)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'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'에 참여했다.

○ 한편, 김헌수 원장은 다음 주자로 **현대해상 이석현 대표이사**와 **한화생명 이경근 대표이사**를 지목했다.